

미국 건국에 있어서 영토성립과 영토인식에 관한 연구

-독도문제에 미칠 미국의 영토인식-

최 장 근*

(e-mail: nihonbu@daegu.ac.kr)

目 次

1. 들어가면서
 2. 유럽 제국주의의 북아메리카대륙 점령
 3. 영국의 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지지역 통합
 4. 영국과의 전쟁에 의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영토확정
 5. 미국의 영토인식과 독도문제와의 관련성
 6. 맺으면서
-

1. 들어가면서

일본이 한국의 독도 실효적 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는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고,¹⁾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연합국의 정책에 의해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영토임에 분명하다. 오늘날 한국의 독도 실효적 관리는 바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한국영토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연합국은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제국주의방식으로 확장한 모든 지역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그런데 일본은 대항적으로 연합국의 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제국일본의 영토를 남게 하려고 연합국 측에 로비했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 전공

1)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출판부, pp.15-251.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p.23-322. 오오니시 토시테루(2011) 『독도개관』 인물사, pp.148-149.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獨島論争』 新幹社, pp.11-342.

다. 일본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아이누민족의 지역과 유구지역을 영토로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했던 쿠릴열도와 센카쿠제도 그리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일본영토로 확정되지 못했다. 사실상 독도에 한정한다면 유사 이래 한 번도 한국이 일본에게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을 자유진영에 편입을 위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던 미국의 동조를 기대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만일 장래에 미국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표명을 한다면 독도문제는 다시 정치적인 문제로 클로즈업될 것이다. 현재 일본은 독도문제를 정치화하여 분쟁지역화를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발언은 독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독도는 유사 이래 고유한 한국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무주지를 선점한 새로운 영토라고 하여 제국주의국가들이 만든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이론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건국과정에 있어서 영토형성과 영토인식을 고찰하여 고유영토론에 대한 미국의 이해도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럽 각국이 북아메리카에 진출하여 인디언의 삶의 영역을 점령하여 식민지로서 관리했는데, 이를 다시 영국이 전쟁으로 식민지로서 통합하였는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북아메리카의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식민지민중들이 반기를 들고 식민지 전쟁을 통해 미국이라는 독립 국가를 만드는 과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영토형성과정과 미국의 영토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다시 독도영토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한다.

선행연구로서는 미국의 영토성립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만,²⁾ 미국영토와 관련하여 고유영토론에 대한 유무를 검토하기 위해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고찰한 연구는 없다.

2. 유럽 제국주의의 북아메리카대륙 점령³⁾

(1) 북아메리카에 있어서 원주민 인디언의 상황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전 북아메리카에는 여러 종족의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2) Hale, C. (2008) "When Hawaii Had a King", Smithsonian Magazine, February 2008, p. 21.
Kinzer, Stephen (2006) America's Century of Regime Change from Hawaii to Iraq Miller 1984, p. 163. 이 외에도 많이 있으나, 영토팽창관련 선행연구의 성과는 대체로 「미국의 영토확장」(<http://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3년 7월 30일)에 축약되어있다고 하겠다.

3) 「미국의 영토확장」,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이들은 각자의 지정된 영역을 중심으로 여러 권력체가 존재했다.⁴⁾ 유럽인들은 무기류 등의 문명화된 도구를 가지고 무역을 위한 경제적 목적 또는 영토 확장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아메리카에 들어와 인디언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의 영역을 침략하여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했다. 당시 인디언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⁵⁾

원래 북아메리카⁶⁾ 원주민 인디언들은 대체로 중부, 서부 평원지대에서 버펄로를 사냥하는 유목민이었으나, 점차로 동부해안지역, 서부지역, 남서부지역으로 흩어져 기후와 지형에 따라 다양한 음식, 의복, 주거, 예술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15세기말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에 처음 도래했을 때 북아메리카 100만 명, 중앙아메리카 300만 명, 남아메리카에 900만 명으로 대략 아메리카 전 대륙에 약 1,300만 명 정도의 원주민(Native American)⁷⁾이 살고 있었다.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침입함으로써 천연두 등의 외래 질병과 전쟁, 노예화와 착취로 인해 그 수가 격감했다. 예를 들면 아이티의 시카오(Cicao)지방의 아라위크족의 경우, 약탈자 스페인인들에 의해 2년 동안 25만 명이나 희생당했는데, 1650년경에는 한명도 남지않았다고 한다.⁸⁾ 일설에 의하면 1492년 콜럼버스가 카리브해 제도에 도달했을 때 3천만 명이었던 것이 1650년에는 8백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⁹⁾

이러한 원주민 인디언 지역인 북아메리카지역에 유럽 국가들이 앞 다투어

4) 북아메리카: 나바호족(Navajo/Navaho), 네즈퍼스족(Nez Perce), 누트카족(Nootka), 라코타족(Lakota), 모하비족(Mohave), 모호크족(Mohawk), 모히칸족(Mahican/Mohican), 샤이엔족(Cheyenne), 세네카족(Seneca), 세미놀족(Seminole), 쇼쇼니족(Shoshone), 수족(Sioux), 아베나키족(Abenaki), 아시니보인족(Assiniboin), 아파치족(Apache), 와이언도트족(Wyandot), 이로쿼이족(Iroquois), 주니족(Zuni), 체로키족(Cherokee), 초크족(Choctaw), 카이오와족(Kiowa), 카이유스족(Cayuse), 코만치족(Comanche), 크리족(Cree), 클라마스족(Klamath), 파이우트족(Paiute), 호피족(Hopi), 휴런족(Huron). 중앙아메리카: 마야족(Mayans), 나후아족(Nahuas), 아즈텍족(Aztecs), 사포텍족(Zapotecs), 믹스텍족(Mixtec), 토토낙족(Totonac), 타라스코족(Tarascan), 푸레페차족(P'urhépecha/Purépecha), 키체족(Quiché/K'iche'), 카치켈족(Kaqchikel), 맘족(Mam). 케치족(Q'eqchi), 카리브족(Carib). 남아메리카: 케추아족(잉카족)(Quechuas/Incas), 파라니족(Guarani), 투피족(Tupi), 마푸체족(Mapuche), 와유족(Wayuu), 아이마라족(Aymara), 티모토쿠이카스족(Timoto-cuicas), 「아메리카 토착민」,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5)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6) 미국영토에 해당하는 알래스카 원주민 및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12,000년~30,000년 전에 러시아 동부의 시베리아 지역에 살던 통구스인이나 이누이트 등의 몽골로이드 계통으로 베링해협을 건너왔거나, 남아메리카에 도착한 폴리네시아인들이 멕시코를 거쳐 북아메리카에 도착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7)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8월 4일). 이 표현은 광범위한 부족, 국가, 민족을 포괄하고 있다.

8) 하워드 진 지음, 조선혜 옮김(1986) 『미국민중저항사』 일원서각, p. 11.

9) 「미국의 역사(콜럼버스 이전시대)」, <http://cafe.naver.com/yuhakdalin/305>(검색일: 2013년 8월 4일).

식민지를 건설하여 인디언들의 지역을 침략했다. 식민지 건설에 동참한 국가들은 스페인, 영국인, 프랑스인, 네덜란드인 등이다.

요컨대, 유럽제국들이 문명화된 무기류를 휴대하고 새로운 식민지개척으로 영토 확장과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북아메리카에 들어왔다.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북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당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명의 권원인 삶의 터전을 약탈당했고, 신분이 침략자의 노예로 전락되어 자유로운 생활이 억압되었으며 유럽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질병에 의해 인디언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했던 것이다.

(2) 스페인의 점령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북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민족은 스페인계이다. 1492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실(이사벨 1세)과 계약을 맺고 카리브해 제도에 도착했다. 그 후 1513년 스페인의 정복자 후안 폰세 데 레온이 "라 플로리다"(La Florida)에 도착했다. 스페인의 북아메리카 개척은 그 이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식민지를 개척하여 스페인사람들의 정착지가 되었다. 이들은 1522년부터 서남부지역인 멕시코까지 확대했고,¹⁰⁾ 더 나아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서인도제도 등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개척했던 것이다.¹¹⁾ 즉 1521년의 아스텍제국, 1525년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왕국, 1535년 페루의 잉카제국, 1538년의 콜롬비아의 칩차왕국, 1545년의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마야왕국을 점령했다.¹²⁾ 이들 스페인의 식민지는 오늘날의 북아메리카의 멕시코, 남아메리카의 과테말라, 브라질, 온두라스, 벨리즈, 니카라과, 페루, 파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가이아나, 수리남, 에콰도르, 쿠바, 엘살바도르, 스페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¹³⁾ 스페인은 1513년에 주앙 폰세 드 레온가 처음으로 오늘날 미국영토인 플로리다를 발견했고, 1526년에 500여명의 스페인인과 100명의 흑인노예가 지금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인 피디강어구에마을을 만들었다. 1550년경에는 북미해안을 탐험하여 서부의 오리건, 동부의 래브라도까지 탐사했고, 1565년 세인트 오거스틴에 요새를 건설했다.¹⁴⁾ 이들 스페인인들이 아메리카대륙에 진출한 목

10) 「미국의 역사(콜럼버스 이전시대)」, <http://cafe.naver.com/yuhakdalin/305>(검색일: 2013년 8월 4일)

11) 「멕시코·중앙아메리카·서인도제국은 남아메리카 제국과 함께 에스파냐·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라틴계 문화의 영향과 에스파냐인의 색채가 짙어 라틴아메리카라고 함」, <http://cafe.daum.net/internationale/Jzlt/8348?docid=3345977180&q=%BD%BA%C6%E4%C0%CE%B1%C7%C0%C7%20%BD%C4%B9%CE%C1%F6%B1%B9%B0%A1>.

12) 강준만(2010) 『미국사산책1』 인물과 사상사, p.67

13) 「남아메리카」,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적은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식민지 개척에 있었던 것이다.¹⁵⁾

요컨대, 유럽국가로서 처음으로 아메리카대륙에 들어간 국가는 스페인이었다. 스페인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다른 유럽국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식민지 쟁탈전 없이 아메리카대륙 전체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북아메리카로부터 남아메리카까지 식민지로서 통치했던 것이다. 당시 스페인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에 대항세력은 분명히 원주민이었던 인디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디언의 역사는 대부분 무시되어 스페인의 침략의 역사만 논의되었던 것이다.

(3) 프랑스의 점령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스페인 다음으로 북아메리카대륙에 들어온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를 위해 피렌체 출신의 베라차노가 1524년 노스캐롤라이나에 상륙했고, 대서양 연안을 따라 지금의 뉴욕만을 따라 북쪽으로 항해했다.¹⁶⁾ 또한 모피 무역상 쿠레르 데 브와들은 오대호 주변 지역에 도착하여 누벨 프랑스라는 식민지의 전초기지를 건설했다.¹⁷⁾ 이들은 멕시코 만까지 북아메리카 내륙의 대부분을 프랑스영토라고 선언했다. 프랑수아 1세 때 1534년 선원 자크 카르티에는 세인트로렌스 만으로 들어가 뉴프랑스(New France)¹⁸⁾를 점령했다. 이들은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지금의 몬트리올 시를 거쳐 퀘벡 주 근처까지 식민지 건설을 의도했다. 그때 프랑스인들은 세인트로렌스 강과 만에 거주하는 인디언들과 모피를 거래했다. 사뮈엘 드 샹플랭¹⁹⁾은 모피무역 전매사업에 관여하여 1603년 세인트로렌스 만, 1604년 펀디 만(현재 노바스코샤 주의 아나폴리스로열)에 항해하여 북아메리카에 최초로 프랑스 식민지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거기서 지금의 몬트리올과 강의 급류지역들을 탐험했다. 1604년에는 펀디 만을 둘러싸고 있는 아카디아 지역에 도착했고, 그곳의 남쪽으로 대서양 해안까지 탐험하여 매사추세츠 만에 도달했다.²⁰⁾ 한편 프랑스의 경쟁국이었던 영국은 1607년 아카

14) 강준만(2010) 『미국사산책1』 인물과 사상사, p.69.

15) 스페인의 아메리카대륙 진출에 관한 역사에는 인디언의 역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국주의국가들의 역사에는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피지배민족의 역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16) 프란시트 휘트니 외 지음, 이경식 옮김(2004) 『미국의 역사』 미국국무부, p.14.

17) 「미국에 대하여」,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9&dirId=9020201&docId=166685028&qb=66qo>(검색일: 2013년 7월 30일).

18) 「뉴프랑스」,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15062(검색일: 2013년 7월 30일).

19) 「샹플랭」, 1567 프랑스 브루아주 출생, 1635. 12. 25 캐나다 퀘벡. 프랑스의 탐험가.

20) 「사뮈엘 드 샹플랭」,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0886&cid=200000000&categoryId=200003890>(검색일: 2013년 7월 30일).

디아 남부, 현재의 메인 주인 케네벡에 도착했다. 프랑스는 영국인들이 퀘벡을 식민지화할 것을 우려하여 그 지역을 식민지로 개척할 계획을 가졌다.²¹⁾ 1608년 샹플랭은 32명의 식민지 개척자를 직접 지휘하여 세인트로렌스 만에 있는 퀘벡을 식민지로서 개척했다. 1611년 모피거래의 많은 금전적 손실로 퀘벡의 식민지 개척이 위기에 처했 때 샹플랭이 루이 13세를 설득하여 1613년 뉴프랑스의 지휘관이 되었다. 프랑스 국왕은 퀘벡 식민지정책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1620년 다시 샹플랭에게 행정적 권한을 주었다. 1627년 프랑스 총리 리슐리외 추기경은 뉴프랑스 회사와 합작하여 세인트로렌스 계곡 전체를 장악한 뉴프랑스 식민지를 인수했다. 프랑스는 1629년부터 15년간 모피무역을 독점적으로 전매하여 프랑스인 200~300명을 뉴프랑스에 이주시켰다.²²⁾

초기에는 영국은 뉴잉글랜드 남쪽, 프랑스는 그 위쪽으로 진출하였으나 양국이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대립되었다.²³⁾ 프랑스가 퀘벡에서 식민지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1628년 영국 정부의 공인을 받은 개척자들이 퀘벡을 공격하여 1629년 프랑스령 퀘벡을 식민지로 장악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지역에서 식민지쟁탈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는 1632년 생제르맹 조약을 체결하여 퀘벡을 회복했고, 매년 늘어나는 정착민들과 함께 세인트로렌스 강 양안을 따라 개척지를 확장시켜나갔다.²⁴⁾ 그러나 1663년 루이 14세가는 뉴프랑스 회사가 그 후 몇 년간 모피무역이외에 식민지 건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뉴프랑스 회사의 특허를 취하하고 뉴프랑스를 직할식민지로 삼았다. 그리고 1666년에는 트라시 후작 알렉산드르 드 프루빌을 사령관으로 1개 연대병력을 파견하여 강제적으로 인디언을 몰아내고, 결혼적령기의 3,000여명의 이주여성을 파견하여 식민지를 강화했다.²⁵⁾

프랑스는 퀘벡을 식민지로 개척한 이후 정착지를 신대륙으로 확대했다. 1910년 프랑스는 북부 인디언 부족과 동맹조약을 맺고 다른 인디언부족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는데, 인디언들로부터 공신력을 얻어갔다. 그 결과 현재의 뉴욕 북부, 오타와 강, 그레이트 레이크의 동부지역을 탐험했고,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인디언과의 모피거래도 증대되었다.²⁶⁾

프랑스는 퀘벡의 최초 행정장관(1665~68과 1670~72)으로 장 바티스트 탈롱을 삼았다. 그는 식민지 건설과 산업을 장려하고 멀리 서부지역 개척을 강행했

21) 「사무엘 드 샹플랭」,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22) 「캐나다의 역사」,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23) 유종선(1995) 『미국사100장면』 가람기획, p.64.

24) 「사무엘 드 샹플랭」,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25) 「뉴프랑스」,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4n0934a&ref=5#ID5(검색일: 2013년 7월 30일).

26) 「캐나다의 역사」,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다. 루이 줄리에는 미시시피 강을 탐험하여 강줄기가 태평양이 아닌 멕시코 만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를 근거로 1671년 시몽 프랑수아 도몽은 수세인트마리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의 내륙지방이 모두 뉴프랑스의 연장부분이라고 하여 프랑스령임을 선언했다. 이렇게 하여 프랑스는 영국의 침략으로부터 켈백을 수호했고 그 기세를 이어 멕시코만까지 북아메리카 내륙의 대부분을 영토로서 확장했다.²⁷⁾ 17세기 동안에 2,000명의 프랑스인들이 이주해왔다.²⁸⁾

요컨대, 스페인의 아메리카대륙의 식민지 개척에 자극을 받아 후발로 참가한 나라가 프랑스였다. 신대륙진출 초기의 프랑스는 스페인이 점령한 북아메리카 전체에 대해 모두 자신들의 식민지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캐나다 지역을 근거지로 식민지 개척을 활발히 했다. 프랑스의 식민지 개척에 있어서 대항상대는 고유영토에서 대를 이어오던 인디언이 아니고 침략자 프랑스였던 것이다.

(4) 영국의 점령지

영국은 1620년과 1635년 사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1630년대 영국찰스1세의 전제군주정치로 크롬웰이 반란으로 승리하자 왕당파들이 1640년대 버지니아로 이주하는 등, 많은 영국인들이 신대륙에 정착했다.²⁹⁾

영국은 북아메리카에 있어서 스페인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을 보고 대항적으로 식민지개척을 시작했던 것이다. 제임스 1세는 1606년 런던의 버지니아회사에게 북위 34~41°의 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식민지 건설을 특허하여 식민지 개척자 120명이 1607년 제임스 강어귀에 버지니아 식민지로서 제임스타운³⁰⁾을 건설했다.³¹⁾ 또한 영국정부는 1609년과 1612년 버지니아 회사에게 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지역³²⁾을 점유하는 새로운 특허장을 주었다. 1619년 영국내의 버지니아 본사는 이들 식민지에 총독과 보좌기관, 각 정착지에서 뽑은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버지니아 회의를 구성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회의 민주적인 양원제의 시초였다. 1624년 왕좌법원(King's Bench)은 런던회사를 해체하고 왕령의 버지니아식민지로 개편하여³³⁾ 영국의 남부식민지의 중심이 되었다.³⁴⁾

27) 「켈백 주」,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28) 아루가 나츠키, 유이 다이자부로 지음, 양영철 옮김(2008) 『미국의 역사』 삼양미디어, p.126.

29) 프란시트 휘트니 외 지음, 이경식 옮김(2004) 『미국의 역사』 미국국무부, p.17.

30) Virginia Company of London이라고도 함.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31233&v=42>(검색일: 2013년 7월 30일).

31) 프란시트 휘트니 외 지음, 이경식 옮김(2004) 『미국의 역사』 미국국무부, pp.18-19.

32) 폭 640km.

33) 「버지니아 주」,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버지니아는 영국 국교인 성공

매사추세츠 식민지 건설은 1620년 영국의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피신한 청교도 분리주의자 35명과 네덜란드에서 합류한 비분리주의자를 포함한 102명³⁵⁾의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되었다.³⁶⁾ 국왕 찰스 1세는 1628년 저항적인 청교도들을 내쫓기 위해 장원의 영주이며 치안 판사였던 존 윈스롭(John Winthrop)을 지사로 선출하여 매사추세츠만 식민지회사³⁷⁾의 토지권과 영토통치권을 칙허했다. 그 후 1630년 청교도들이 17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매사추세츠의 찰스타운에 정착했다. 그 후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번창하여 청교도인들만의 지역이 되었다.³⁸⁾

메릴랜드³⁹⁾식민지는 1629년부터 개척이 시작되었는데, 영국국왕이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영국에서처럼 종교와 국가가 쉽게 결탁할 수 없었다. 찰스 1세는 1632년 귀족 볼티모어 경(조지 칼버트)에게 영주로서 체서피크 만의 다른 한쪽이었던 포토맥 강 남쪽의 넓은 지역에 식민지(proprietary colony)개척권을 주었다.⁴⁰⁾

뉴잉글랜드 식민지는 1620년 메이플라워호(號)를 타고 온 102명의 청교도가 현재의 보스턴 남쪽에 상륙하여 그곳에 플리머스 식민지를 형성한 것이 시초이다. 1634년경의 뉴잉글랜드⁴¹⁾는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의 6주에 걸친 지역이다. 뉴잉글랜드는 북부 식민지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1만 여명의 청교도들은 풍속, 습관, 사회제도에 있어 근면, 검소하고 도덕을 준수하는 생활을 하였다. 뉴잉글랜드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회 교회의 유지를 위해 주민들은 종교세를 내어야 했다.

34) 「남부 식민지 사회의 형성 - 2. 체서피크 만의 식민지들」,

<http://www.cyworld.com/aja007/6113810>

35)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 巡禮始祖)」,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207862>(검색일: 2013년 7월 30일).

36) 1620년 11월 21일, 필그림은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승선자 중 41명의 남성들이 메이플라워호서약을 통해 이탈을 막았다.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37432&v=43>(검색일: 2013년 7월 30일).

37) 「메이플라워 서약(Mayflower Compac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5875&categoryId=2564#>(검색일: 2013년 7월 30일).

38) 프란시트 휘트니 외 지음, 이경식 옮김(2004) 『미국의 역사』 미국국무부, pp.19-22.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참정권은 청교도인에게만 주어졌다.

39) 「메릴랜드 식민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5866&categoryId=2564#>(검색일: 2013년 7월 30일).

40) “볼티모어경은 가톨릭교도였기 때문에 국교회인 성공회로부터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가톨릭교도들의 종교적 피난처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볼티모어 경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이 1634년 가톨릭교도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도를 포함하는 수백 명의 이민자들을 메릴랜드 식민지에 보냈다. 메릴랜드는 프로테스탄트 교도가 늘어나서 영주와 경작자들 사이에 자주 분쟁이 격화되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평등주의를 상징하는 자유민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식민지 의회가 설치되고 모든 교파에 대한 종교적 관용도 인정되었다”(상동).

41) 「뉴잉글랜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8309&categoryId=200001297>(검색일: 2013년 7월 30일).

곳에 1643년부터 1684년까지 뉴잉글랜드 연합이라는 식민지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당부분 본국의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식민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18세기 이후 이곳 뉴잉글랜드는 이주자가 적어 영국계 이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특유의 뉴잉글랜드 기질이 조성되었다. 그 후 뉴잉글랜드의 기질은 비옥한 토지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미국 각지에 전파되어 미국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⁴²⁾ 17세기 동안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약 15만 명, 아일랜드에서 5,000명, 스코틀랜드에서 2,000명이 북미대륙에 이주하여 유럽인의 94%가 영국인들이었다.⁴³⁾

요컨대, 영국은 북아메리카 동부에서 서로 다른 교파의 종교집단에 의해 여러 지역에 걸쳐 식민지를 개척했다. 선행연구에서는 북아메리카에 침입한 영국의 역사는 존재하고 있지만 피지배자였던 원주민 인디언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영국이 원주민 인디언 지역을 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침략하여 오늘날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인디언들의 고유영토론은 사라지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들이 침략한 영토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국제법에 의한 신 영토론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5) 네덜란드인의 점령지

네덜란드도 영국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과 프랑스가 개척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에 대항적으로 식민지개척을 시작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1602년 인도제국의 탐험과 세계 미지의 영토를 탐험하기 위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특허했다. 헨리 허드슨은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대신하여 미국 동부 해안지역을 탐험했다.⁴⁴⁾ 테이헤르(Tijger, 호랑이)호가 1613년 겨울 허드슨 강을 향해하다가 표류했다. 이듬해 롱아일랜드 해안을 탐험하여 선장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블록 섬’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에 의해 구출된 후 그 정착지를 버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620년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로서 네덜란드인이 영국 분리주의 청교도 35명과 함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에 정착했다.⁴⁵⁾

페터 미노이트는 1626년 인디언에게 맨해튼 섬을 사들여⁴⁶⁾ 뉴암스테르담(뉴

42) 「네덜란드계 미국인」,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43) 아루가 나츠키, 유이 다이자부로 지음, 양영철 옮김(2008) 『미국의 역사』 삼양미디어, p.126.

44) “2000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5백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총 혹은 일부분의 네덜란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다. 오늘날 네덜란드계 미국인의 다수는 미시간, 캘리포니아, 몬태나, 미네소타, 뉴욕, 위스콘신, 아이다호, 유타, 아이오와,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에 살고 있다. 그때부터 현재 뉴욕의 전신인 뉴암스테르담을 포함한 마을들이 네덜란드 이민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네덜란드계 미국인」,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45) 「혁신과 청교도주의」,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41>(검색일: 2013년 7월 30일).

46) 「총60 골덴」은 지금의 24 달러 정도에 해당함.

육의 전신)을 건설했다. 또한 1629년 네덜란드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로부터 허드슨 강 유역 12 마일을 구입하여 이주자 50명을 파견하여 영구 관할권과 통상권을 획득하였으나, 서인도 회사가 1635년 다시 이들 지주들의 관할권을 장악했다.⁴⁷⁾

네덜란드인들은 인디언들로부터 토지를 구매하여 정착지를 넓혀나갔다. 네덜란드정부는 1656년 부유한 시민들에게 큰 특권들을 부여하여 뉴네덜란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는 뉴네덜란드 인구가 1648년에 2천명이었던 것이 1660년에 1만 명으로 증가했다.⁴⁸⁾ 뉴네덜란드의 인구는 절반은 네덜란드인이고, 나머지는 주로 왈롱인들과 프랑스 위그노들이었다. 그래서 맨해튼은 다문화가 형성되었다. 그 변방지역은 대체로 200년 동안 네덜란드인들의 거주 지역이 되었고, 17세기 동안에 6000명의 네덜란드인들이 이주해왔다.⁴⁹⁾ 이 지역은 1664년 영국인들이 식민지로 건설하면서 뉴욕으로 개명되었다.⁵⁰⁾

요컨대 네덜란드의 북아메리카 개척은 대체로 동부지역으로 영국의 식민지 개척지역과 인근하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정부가 앞장서서 강압적인 전쟁보다는 본국으로부터 부유한 지주들을 파견하여 인디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적극적으로 북아메리카를 개척을 추진했던 것이다.

(6) 아프리카 흑인의 북아메리카 대륙진출

아프리카 흑인들은 유럽 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에 있어서 노동력으로 이용되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500년대 초에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개척에 아프리카 노예⁵¹⁾를 본격적으로 활용했다.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식민지로 개척할 때, 스페인은 서인도 제도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할 때 아프리카 노예를 이용했다. 1600년대 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도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할 때 아프리카 노예들을 이용했다. 1600년대 중반 식민지들은 노예 법전을 만들어 노예들의 무기 소유, 교육 헌납, 주인 허락 없이 이주를 금지했다.⁵²⁾

아프리카에서 사로잡혀 계약 하인⁵³⁾으로서 처음으로 북아메리카대륙에 팔려 온 것은 1619년 네덜란드 국적의 한 척의 배가 20여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싣고

47) 「뉴욕의 역사」,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48) 상동, 「뉴네덜란드」 참조.

49) 아루가 나츠키, 유이 다이자부로 지음, 양영철 옮김(2008) 『미국의 역사』 삼양미디어, p.126.

50) 상동, 「뉴네덜란드」 참조.

51) 아프리카인들은 고대시대 이래 노예 제도를 실습하였다. 수많은 경우, 노예들은 전쟁 포로로 잡히고 북아프리카의 아랍 상인들에게 팔렸다.

52) 「노예 무역선」, <http://cafe.naver.com/engus97/3032>(검색일: 2013년 7월 30일).

53) 아메리카 식민지에 처음으로 들어온 흑인들은 하류 집안 백인들의 계약 하인들이었다. 대부분의 계약 흑인들은 4년 혹은 7년 동안 임금없이 주인들을 위하여 일하였다.

버지니아의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것이다.⁵⁴⁾ 계약흑인들 중에는 4~7년 무임금의 노동 임무를 마친 후, 재산을 사들여 자유 흑인이 되어 백인 식민주의자들 사이에서 인종적 편견을 받으면서 최저 계급으로 살게 되었다.⁵⁵⁾

요컨대, 가장 먼저 북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는 스페인이었고, 스페인에 대항적으로 식민지 개척을 시작한 나라가 프랑스였다.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이 서로 경쟁하듯이 스페인과 프랑스가 개척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척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때에 모든 제국주의국가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서 사들여 아메리카를 식민지로서 개척하는데 노동력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원주민 인디언들이 직접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는 대상은 아니었다. 바로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서 박해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3. 영국의 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지지역 통합

(1) 프랑스와의 식민지 전쟁

영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토 확장과 교역문제로 프랑스와 치열하게 대립했다. 영국·프랑스 간의 최초 북아메리카 식민지전쟁은 1689년 영국의 윌리엄 피프스 경이 뉴잉글랜드 함대와 군대로 뉴프랑스령의 아카디아를 점령했던 것이다.⁵⁶⁾ 그리고 영국은 1690년 퀘벡을 침략했지만 뉴프랑스군에게 저지당했다. 그 이후 뉴프랑스군은 뉴잉글랜드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마침내 이로쿼이족 지역을 점령했다. 한편 캐나다인으로 구성된 뉴프랑스군은 허드슨만을 정복하여 아카디아를 되찾고 뉴펀들랜드를 공략했다.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1697년의 강화조약에서 뉴프랑스는 원래의 소유지였던 허드슨 만(뉴펀들랜드는 제외)을 고수했는데,⁵⁷⁾ 이것은 프랑스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캐나다인들이 이룬 성과였다. 캐나다인 이베르빌은 1699년에 뉴프랑스의 또 다른 영토인 루이지애나를 식민지로 건설했고, 1700년과 1701년에는 뉴프랑스는 이로쿼이족과 인디언 동맹을 체결하여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영해갔던 것이다.⁵⁸⁾

54) 전국역사교사모임 지음, 『처음 읽는 미국사』 청아문화사, 2010, p.67.

55) 「뉴저지 흑인의 역사(2) -초기 식민시대부터 1790년까지」,

<http://blog.naver.com/shorthills?Redirect=Log&logNo=50178047856>(검색일: 2013년 7월 30일).

56) 「윌리엄 왕 전쟁(1689~97)」이라고 함.

57) 「레이스베이크 조약」이라고 함.

58) 「뉴프랑스」,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4n0934a&ref=5#ID5(검색일: 2013년 7월 30일).

그런데 영국인들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영국 식민지 주민들은 뉴프랑스 전체를 정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영국은 프랑스가 스페인을 병합하여 식민지를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여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⁵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프랑스와 교전했고, 캐나다에서도 프랑스로 식민지를 공격했다. 1710년 영국인들이 아카디아를 다시 장악했다. 그러나 세인트로렌스 강 유역에서 심한 타격을 받고 후퇴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전투는 대부분 유럽에서 일어났다. 스페인의 왕위 계승 전쟁이 1713년에 끝이 났다. 결과적으로 영국이 승리하여 북아메리카에서 허드슨 만을 되찾았고, 뉴펀들랜드에 대한 프랑스의 권리를 제한했으며, 아카디아를 분할하여(케이프브레턴 섬 제외) 서부의 모피무역에 개입하게 되었다.⁶⁰⁾ 영국은 이 전쟁으로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의 식민지 지역으로 식민지영토를 점진적으로 확장해나갔던 것이다.

영국은 1742년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때에는 오스트리아 편에서 프랑스와 전쟁을 했다.⁶¹⁾ 영국군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카디아와 북부 뉴잉글랜드의 경계를 둘러싸고 식민지 전쟁을 일으켰다. 1745년 영국군이 우세하여 루이스버그를 점령하였지만, 양국은 화약(和約)을 맺고 서로의 점령지를 반환했다.⁶²⁾

1756년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7년 전쟁⁶³⁾을 하고 있을 때,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오하이오강 주변의 인디언 영토를 둘러싸고 전쟁했다.⁶⁴⁾ 프랑스 군대와 캐나다 방위대는 2년 동안 전승 상태에 있었으나, 1758년 영국군대가 본국으로부터 많은 병력을 지원받아 루이스버그를 점령했다. 그 기세로 영국은 1759년 퀘벡을 점령했고,⁶⁵⁾ 1760년에 몬트리올을 점령함으로써 뉴프랑스 모든 영토가 영국에 점령당하게 되었다.⁶⁶⁾

영국은 1763년 프랑스와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케이프브레턴 섬과 뉴올리언스 외곽에 있는 미시시피 강 동쪽의 모든 뉴프랑스 영토를 확보했다.

59) 앤 여왕 전쟁(Queen Anne's War, 1702~1713),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60) 「위트레흐트 조약」이라고 함.

61) 「조지 왕 전쟁(King George's War, 1744~1748)」이라고 함.

62) 「영국-네덜란드 전쟁」,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63) 프렌치 인디언 전쟁(French and Indian War, 1755년 - 1763년)

64) “영국과 프랑스 모두 인디언들과 동맹을 맺었지만, 영국 측에서 볼 때 프랑스가 인디언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프랑스 - 인디언 전쟁이라고 한다.”

「영국-네덜란드 전쟁」,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65) “퀘벡이 영국에게 점령당했지만, 남쪽의 다른 식민지와는 달리 프랑스어를 쓰는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상태로 있었다. 현재의 퀘벡 주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던 6만 여명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영국시민이 되었다.” 「영국-네덜란드 전쟁」,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66) 「영국-네덜란드 전쟁」,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프랑스는 뉴펀들랜드 근처에 있는 생피에르 섬과 미클롱 섬을 유지하고 뉴펀들랜드에 대한 조업권도 인정받았다.⁶⁷⁾

요컨대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식민지 경영에서 인디언과의 모피(毛皮) 무역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영국은 농업을 위한 식민지경영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영토 확장에 적극적이었다. 식민지 초기 프랑스의 식민지는 캐나다와 미시시피 유역에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지를 북과 서에서 포위하는 형세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영국이 영토 확장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북아메리카에서도 식민지 쟁탈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프랑스는 전면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⁶⁸⁾ 물론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 쟁탈지역도 애당초는 원주민 인디언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 지역은 원주민의 존재가 무시되고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2) 네덜란드와의 식민지 전쟁

네덜란드는 17세기 초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기세로 영국과 거의 같은 시기 북아메리카대륙에서 미국동부라는 같은 지역에서 식민지 개척을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1652년부터 2년간의 영국과의 전쟁⁶⁹⁾에서 패하여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영국은 1664년 찰스 2세가 아메리카 대륙의 뉴 네덜란드를 침략하여 뉴암스테르담을 점령하고 그 이듬해 1665년 선전포고로 네덜란드를 침략했다.⁷⁰⁾ 그러나 프랑스가 네덜란드에 가담하여 참전함으로써 영국이 패배했다. 1667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3국간에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즉 「①양국의 영토는 대략 현 상태를 유지한다. ②영국은 뉴암스테르담(오늘의 뉴욕)을 얻고, 네덜란드는 수리남을 확보한다. ③영국과 프랑스 간에는 영국이 아카디아를 프랑스에 양도하고 서인도 제도를 영토로서 취한다.」고 합의했다.⁷¹⁾

1672년 프랑스(국왕 루이 14세)는 무역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침략했다. 전쟁결과 강화조약⁷²⁾으로 네덜란드는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 대신 중립(中立)을 약속했다. 프랑스는 스페인으로부터 프랑슈콩테와 동북 국경의 여러 도시를 획득했다.⁷³⁾

67) 상동, 「영국-네덜란드 전쟁」 참조.

68) 「조지 왕 전쟁」,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69) 「제1차 영란전쟁(1652 ~ 1654)」이라고 함.

70) 「제2차 영란전쟁(1665 ~ 1667)」이라고 함.

71) 「브레다 조약(Treaty of Breda)」이라고 함.

72) 「네이메헌 화약」이라고 함.

73) 「제3차 영란전쟁(1672 ~ 1674)」이라고 함.

영국은 1674년 제4차 영란전쟁⁷⁴⁾에서 승리하여 네덜란드의 아메리카 영토를 전부를 획득하고 뉴네덜란드 주를 뉴욕 주로 개명했다. 그리고 위스콘신 주에 있는 전형적 네덜란드인 농가인 뉴네덜란드를 100년간 통치함으로써 네덜란드인의 이민은 완전히 정지되었고, 영국 통치하의 뉴네덜란드는 1683년 네덜란드인 남여 200여명이 저먼타운⁷⁵⁾을 설립하였다.⁷⁶⁾

뉴암스테르담은 뉴욕으로 개명된 뒤 급격히 발전했고, 18세기에 들어 아프리카 노예들이 노동을 담당했다.⁷⁷⁾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롤라이나는 1729년 경제적 사회적 갈등으로 북부와 남부가 나누어져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분리되었다. 영국은 1732년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하여 조지아에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13개의 식민지를 통치하게 되었던 것이다.⁷⁸⁾

네덜란드인들은 미국의 독립 전쟁에서 연합군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반란군이었다. 서인도 제도의 네덜란드령 신트외스타티우스 섬의 총독은 자신의 요새에 있는 대포를 발사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었다.⁷⁹⁾ 1776년 11월 16일 미국계 네덜란드인들은 처음으로 미국국기가 된 성조기에 경례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⁸⁰⁾

요컨대, 영국은 북아메리카대륙에서 우선적으로 스페인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전쟁으로 획득하였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식민지를 전쟁을 통해 장악하였다. 이렇게 해서 영국이 후일 미합중국의 독립을 선언했던 13개주를 모두 통치하

74) 「영국-네덜란드 전쟁」,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75) 「이 정착자들의 대부분은 윌리엄 펜의 호소에 책임을 지고 온 퀘이커 교도들이었다. 자신이 네덜란드계 영국인이던 펜(어머니가 로테르담에서 건너왔음)은 자신이 몇몇의 팜플렛을 발간한 네덜란드를 3번이나 방문하였다. 저먼타운은 현재 독일인 계통들이 산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18세기의 시작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네덜란드인들로 남아있다. 독일인 이민들 만이 추진력을 얻어 곧 지역을 지배하였다.」 「네덜란드계 미국인」,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76) 상동, 「네덜란드계 미국인」 참조.

77) 상동, 「네덜란드계 미국인」 참조.

78) 상동, 「네덜란드계 미국인」 참조.

79) 그 이후 제4차 영국-네덜란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이 1780년 12월 20일에 네덜란드에 전쟁을 선포하고 1784년 5월 네덜란드의 항복으로 종결되었다. 영란간의 4차례 전쟁으로 네덜란드는 세계 강대국 지위를 상실했고, 영국은 해양강국으로 부상했다.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의 해양제패」, <http://blog.naver.com/hgb408?Redirect=Log&logNo=150134017687>(검색일: 2013년 7월 30일).

80) 미국 대통령 중에 5명 즉 8대 마틴 밴 뷰런, 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41대 조지 H. W. 부시와 43대 조지 W. 부시는 네덜란드계이다. 네덜란드계 미국인들은 1820년과 1900년 사이에 네덜란드로부터 34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수만명의 네덜란드 이민들이 그들에게 가입하면서 주로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로 이주하였다. 미시간 주와 아이오와 주의 몇몇의 군들은 네덜란드계 미국인들이 가장 큰 민족 단체로 남아있다. 오늘날에는 네덜란드계 미국인의 대부분(27%)는 캘리포니아 주에 살며, 뉴욕 주, 미시간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가 그 다음이다. 「미국의 대통령」,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게 되었던 것이다. 영국은 1606년 버지니아회사를 통해 북아메리카에 식민지 개척을 시작하여 1776년 미합중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1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사실상 북아메리카대륙에서의 영국의 식민지통치기관은 영국의 본국정부로부터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13개주의 식민지기관은 영국 본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위한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에 네덜란드계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었다.

4. 영국과의 전쟁에 의한 미국⁸¹⁾의 독립선언과 영토 확정

북아메리카에서 1760년대부터 영국 식민지통치기관은 영국 본국과 극한 상황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영국 식민지는 1775년 6월 14일, 필라델피아에서 회의를 열고 대륙군을 창설하고,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났다. 미국 군대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영국을 무찔렀다.⁸²⁾ 미국은 1776년 영국의 식민지⁸³⁾로부터 13개 식민지를 갖고 독립을 선언했다. 필라델피아 회의는 1776년 7월 4일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한 독립 선언서를 채택하고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했다.⁸⁴⁾ 영국 식민지는 1777년 미합중국(미국)이라는 이름으로 13개주를 연합하는 연합 헌장으로 미국정부를 수립했다.⁸⁵⁾ 영국본국에 대한 미합중국의 독립전쟁은 1781년에 종결되었다. 1783년 영국과 미국 사이에 파리 조약(Treaty of Paris)이 체결되고 미국의 독립이 승인되었다. 영국은 뉴욕을 수도로 하는 미합중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13개주에 대해 미시시피 강 동쪽을 미국의 영토로서 주권을 승인했다.⁸⁶⁾

영국본국 식민지와 미합중국과의 경계는 북으로는 오대호와 세인트로렌스

81)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82) 「요크타운 전투」를 말함.

83)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1776년 당시 북아메리카와 영국과 에스파냐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은 북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 1776년 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식민지를 여전히 지배했다. 지금의 캐나다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주 포함)뉴펀들랜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1798년까지는 "Île Saint-Jean"), 로어 캐나다, 캐나다 이스트 (퀘벡 주와 온타리오 주), 지금의 미국동플로리다 (지금의 플로리다 주) 서플로리다 (지금의 루이지애나 주, 미시시피 주, 앨라배마 주, 플로리다 주의 일부), 지금의 독립국으로는 바베이도스, 바하마, 자메이카, 네비스 섬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일부), 세인트크리스토퍼 섬 (지금의 세인트키츠 섬), 지금의 영국령 해외 영토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이다.

84) 이 날은 오늘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되었다.

85) 이는 1789년까지 존속하였다.

86)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강, 남쪽은 조지아의 남쪽 경계 및 북위 31도, 서쪽은 미시시피 강으로 정해졌다. 또한 미국인은 뉴펀들랜드 섬에 있어서의 어업권과 미시시피강에 있어서의 항해권을 인정받았다.⁸⁷⁾ 그래서 뉴잉글랜드의 식민지였던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만,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플랜테이션, 코네티컷, 중부 식민지였던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남부 식민지였던 메릴랜드, 버지니아, 켄터키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가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⁸⁸⁾

1776년의 연합헌장에 의한 미국정부는 유연한 정부였는데, 1787년에 미국 연방정부는 조세권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라델피아 헌법회의를 조직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의 미국헌법이 1789년 비준되어 초대 의회 상하원 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의회에서는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790년 워싱턴 대통령은 수도를 필라델피아로 옮겼다. 연방정부는 1791년 권리장전을 채택하여 개인의 자유와 다양한 법적 보장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1800년에는 수도를 워싱턴 D.C.로 옮겼다.⁸⁹⁾

이렇게 해서 미국이 건국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서부지역은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1818년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뉴칼레도니아의 남부를 포함하여 49도선 이하의 모든 루퍼트 영지와 레드 강 식민지를 포함하는 로키 산맥 서쪽의 영토주권을 인정받다. 또한 오리건국가⁹⁰⁾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공유지로서 합의하여 양국 간의 국경문제를 해결했다.⁹¹⁾

요컨대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13개주 연합으로 독립을 선언하여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다. 신생 미국은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으로 탄생되었던 것이다. 영국이 침략했던 북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 인디언의 땅은 영국식민지로부터 분리 독립한 새로운 국가 미국이 통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17세기 이전 고유영역으로서 삶을 추구했던 아메리카 인디언의 영토는 다시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영토가 되었다.

미국 역사에서 미국이 독립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것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영국 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원주민 인디언의 존재는

87) 상동,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참조.

88) 상동,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참조.

89) 상동,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참조.

90) 「오리건 컨트리」,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영국과 캐나다의 역사에서 허드슨 베이회사의 퀴럼비아 지구로 알려진 지역.

91) 「오리건 컨트리」,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3년 7월 30일).

전적으로 무시되었다. 사실상 미국은 제국주의국가였던 영국이 파견한 식민지 세력이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 영국의 지배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국가를 만든 형태이다. 따라서 미국은 타국의 지배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사용되는 「미국 독립」이라는 용어보다는 인디언의 영토를 침략하여 새로운 나라 미국이 건국되었다는 의미로 「미국의 건국」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

5. 미국의 영토인식과 독도문제와의 관련성

미국이 독도문제에 처음으로 관여한 것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한국에 대해 독립을 인정한다는 것이었고, 또한 일본에 대해서는 청일전쟁 이후에 침략한 모든 해외영토를 무조건 박탈하고, 더불어 메이지정부 이후에 도취한 해외영토까지도 일본영토에서 분리한다고 하는 조치였다. 카이로 선언은 미, 영, 중 3국의 초강대국이 합의한 것이고, 포츠담선언은 미,영,중에다가 소련이 가담하여 서명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영토의 독도에 대해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⁹²⁾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은밀히 한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조치였다. 따라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에서 규정한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침략한 영토’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일본은 ‘다케시마’는 “원래부터 무주지였다”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조인된 대일평화조약에 침략한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평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적 지위를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다케시마가 1910년 한일합병이전에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침략한 영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다케시마는 당시 무주지로서 일본이 국제법으로 합법하게 편입한 새로운 영토이고, 영토로 확정된 최초의 국가라는 것이다.⁹³⁾

미국은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제2차대전 종전을 단행한 연합국(중심국가 미국)은 1946년 1월 처음으로 SCAPIN 677호를 명령하여 일본영토에 관한 조치를 내렸다. 이때에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92)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377, 2004, pp.7-188.

93) 1905년 이전까지 영토로 결정되지 않은 섬이 있었는가를 연구하면 만일 유독 독도만이 무주지로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일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한국영토 독도를 침입한 것이 된다.

한국영토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당시까지 남겨진 독도에 관한 고지도와 고문헌을 중심으로 본 역사적 권원에 의거한 것이었다.⁹⁴⁾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 체결을 대비하여 「평화조약문제 연구간사회」를 조직하여 일본제국이 확장한 영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간사회는 대일강화조약에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바탕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한다」고 하여 일본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를 최대한 많이 남게 하려고 노력했다.⁹⁵⁾ 간사회는 1946년 1월29일 스케핀 677호가 발령되어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6년 5월 「제1차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쿠릴열도와 함께 다른 여러 섬의 소속을 결정함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의미에 의한 공평한 결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⁹⁶⁾라고 했다. 즉 「일본근접 제도로서 아마미대도(奄美大島)와 이즈대도(伊豆大島)⁹⁷⁾, 「류큐(琉球)제도」, 「이오지마(硫黃島)」, 「조선, 대만」을 언급하고 있지만,⁹⁸⁾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즉 일본정부는 1946년 5월 제1차 연구보고」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초안 작성과정에서도 미국을 설득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정받으려고 했다. 즉, 미 국무성은 1947년 3월의 「1차 초안」부터 1949년 11월의 「5차 초안」까지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서 조치했다. 그런데 미 국무성이 1949년 12월 29일의 「6차 초안」에서 돌연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에 대해 「1949년 11월 14일 도쿄 맥아더 사령부 정치고문국 고문 시볼드(연합국최고사령부 외교국장)가 5차 초안을 검토하고 맥아더와 상의한 후 워싱턴의 일본문제 담당 버터워스 국무부 차관보에게 독도귀속 수정(남한이 아닌 일본으로)을 전문(電文) “제6조 리앙쿠르암[다케시마]의 재고를 권고한다. 이들 섬에 대한 일본의 주권은 오래됐으며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안전보장의 고려가 이 섬에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를 상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건의했다. 11월 19일 도쿄의 시볼드가 미 국무장관 앞으로 서면 의견서를 발송했다. ‘11월 2일 조약초안에 관한 상세한 코멘트(DETAILED COMMENT ON NOVEMBER 2DRAFTTREATY)’라는 제목으로 “한국방면에서 일본이 일찍이 영유하고 있던 도서들의 처분에 관하여 리앙쿠르암(다케시마)이 우리가 제안한 제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기

94)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지도나 고문헌을 통해 확정했을 것이다.

95) 「外務省公開マイクロフィルム番号」, b'0008, pp.0195-0196.

96) 「外務省公開マイクロフィルム番号」, b'0008, pp.0174-0175.

97) 「外務省公開マイクロフィルム番号」, b'0008, pp.0195-0196.

98) 「外務省公開マイクロフィルム番号」, b'0008, pp.0197-0198.

될 것을 제안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장은 오래됐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한국 바다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미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문제로서 안전보장의 고려에서 이 섬에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⁹⁹⁾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정부가 독도의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미국측에 제공한 것이었다.¹⁰⁰⁾

그후 일본은 종종 독도문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일본의 입장을 두둔해주는 미국의 발언을 기대했다.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대내외에 선언했을 대에도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기대했다. 평화선 선언 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때, 일본의회에서 야당 전문위원이었던 야마모토 위원은 1952년 1월 30일 「니시무라 조약국장으로부터 ‘죽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한 것처럼 일본정부가 ‘죽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한국대통령 이승만씨의 한반도 주변해역의 어업권 주장에 관한 선언」은 「이번 조약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총사령부의 의향도 충분히 참작된 조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정부도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합국의 지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선언을 발표한 것 역시 미국측의 양해를 얻은 결과일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¹⁰¹⁾라고 지적했다. 즉 야당위원은 일본정부에 대해 당시 미국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여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 한국전쟁이 일어나 한국 국내의 정세가 혼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일본 수산청은 성조기를 선박에 달고 독도에 침범하기도 했다. 즉 1953년 「6월 25일 오후 4시 30분 경 미국기를 단 일본 수산시험청 소속 선박이 독도에 침입했다. 승무원 9명이 독도에 상륙하여 머물고 있던 한국인 6명에게 체류이유를 따지고 사진을 찍었으며, 우리 정부가 건립한 표지판의 사진도 찍은 후 오후 7시 경 돌아 갔다.»¹⁰²⁾ 「6월 27일 오전 10시 경 미국기를 단 일본선박이 독도에 침입했다. 8명의 일본인이 독도에 상륙하여 6월 25일 한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오후 3시 경 돌아갔다.»¹⁰³⁾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는 일본정부가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고 하

99) 「울릉도/독도연표」, <http://www.dokdomuseum.go.kr/>(검색일: 2013년 7월 30일).

100) 毎日新聞社編, 『對日平和條約』 毎日新聞社, 1952의 부속지도 참조. 高野雄一, 『國際法からみた北方領土』 岩波ブックレット No. 62, pp.30-32.

101) 야마모토(山本) 위원의 발언, 「중의원 -외무위원회-2호, 1952년 1월30일,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제1부, p.45.

102) 「울릉도/독도연표」, <http://www.dokdomuseum.go.kr/>(검색일: 2013년 7월 30일)

103) 「울릉도/독도연표」, <http://www.dokdomuseum.go.kr/>(검색일: 2013년 7월 30일)

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책략이었다.

일본정부는 미일행정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도 미국이 일본영토임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1953년 독도가 미 공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지정되어 한국어민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정부는 미 국방부에 훈련장 해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1953년 2월 27일 미국은 한국정부에 「웨이랜드 미극동군 사령관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연합국 사령관이 인정하여 미 공군의 독도폭격훈련을 중단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왔던 것이다.¹⁰⁴⁾ 그런데 일본은 「죽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시설로서 지정되어 있어 일본의 영토로 취급되는 것은 명백하다.」¹⁰⁵⁾라고 하여 미일행정협정을 체결하여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미국인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고 하는 한국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미국은 대일평화조약 체결과정, 그후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자신들의 영토인식을 언급해왔다. 미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때 그 때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을 다르게 표현해왔다. 미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한일 양국은 일비일희 해온 역사적 과정을 갖고 있다.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은 제3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독도의 영토적 권원에 대해 상세하게 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독도의 영토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독도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검토한 것처럼 미국에는 원주민 인디언의 고유영토를 침략하여 건국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영국제국주의가 침략한 식민지 개척을 정당화했다. 그래서 침략의 역사도 정당화하는 영토인식으로 갖고 있어서 고유영토론에 대한 인식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침략한 영토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법의 「영토취득」요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과거 독도문제에 관여한 미국의 영토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입장표명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104) 나카무라 고이치(中村幸八) 정부위원, 「1953년 3월 5일, [037/189] 15 - 참의원- 외무, 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62. 「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 시기의 죽도 영유권 인식 -일본의 국회의 사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4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1.2, pp. 353-371.

105) 外務省, 「竹島問題」, 일본외무성홈페이지, 「米軍訓練場に對する指定(官報)」(PDF):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beigun.html(검색일: 2013년 7월 30일)

6. 맺으면서

본 연구는 독도문제에 미칠 미국의 영토인식을 검토할 목적으로 미국 건국에 있어서 영토성립 과정에 관해 고찰했다. 그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아메리카대륙은 원래 다양한 종족의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제국주의국가로 성장은 유럽 각국은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북아메리카대륙으로 들어갔다. 바로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이다. 이들은 인디언의 삶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원주민 인디언 세력이 점진적으로 감소되었다. 침략적인 제국주의적인 유럽세력이 인디언의 영역을 서서히 잠식하여 그 지역을 지금의 캐나다, 미국, 남미지역으로 확장해갔다.

둘째로, 유럽의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이 북아메리카대륙에 진출하여 식민지를 개척했다. 드디어 앞 다투어 북아메리카대륙에 진출한 유럽 각국의 제국주의국가들은 서로의 식민지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영국은 북아메리카 전 지역에 있어서 다른 제국주의국가들의 식민지를 전쟁으로 통합했다.

셋째로, 영국은 유럽제국의 북아메리카지역의 식민지를 통합했지만, 1606년 버지니아회사를 통해 식민지개척을 시작하여 170년이라는 세월과 그 식민지역의 구성원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 본국으로부터 통치 받는 것을 꺼려했다. 영국의 식민지가 된 13개주는 서로 연합하여 미합중국(106)이라는 이름으로 종주국 영국에 대해 전쟁을 통해 독립을 선언했던 것이다.

넷째로, 미국은 한국의 독립과 함께 한국영토를 처리함에 있어서 독도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미국의 입장은 독도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그런데 미국은 유럽에서 들어온 식민지개척자들로서 원주민 인디언의 영역을 침범하여 만든 제국주의국가를 바탕으로 건국된 나라이다. 그 때문에 미국의 영토인식에는 고유영토론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권력이 강한 자가 넓은 영토를 가질 수 있다는 영토인식을 갖고 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영토를 둘러싸고 한국은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이라는 제국주의국가들이 만든 국제 법을 적용하여 침략한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미국은 무주지 선점론에 의해 미국영토를 확정하고 또 이웃나라를 침략적으로 확장하여 성립된 나라이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고유영토론 주장에 대해 얼마나 이해력을 갖고 있을까? 향후 독도문제 해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106)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참고문헌】

- 강준만(2010) 『미국사산책1』 인물과 사상사, p.67.
- 독도박물관, 「울릉도/독도연표」, <http://www.dokdomuseum.go.kr/>(검색일: 2013년 7월 30일).
-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제1부 1948-1976년』 동북아역사재단, p.1-1345.
- 네이버 지식사전, 「미국의 역사(콜럼버스 이전시대)」, <http://cafe.naver.com/yuhakdalin/305>(검색일: 2013년 8월 4일)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출판부, pp.15-251.
-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p.23-322.
- 오오니시 토시테루(211) 『독도개관』 인문사, 148-149.
- 위키피디아, 「미국의 영토확장」, <http://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3년 7월 30일).
- 유중선(1995) 『미국사100장면』 가람기획, p.64.
- 아루가 나츠키, 유이 디자인부로 지음, 양영철 옮김(2008) 『미국의 역사』 삼양미디어, p.126.
- 전국역사교사모임(2010) 『처음 읽는 미국사』 청아문화사, p.67.
- 프란시트 휘트니 외 지음, 이경식 옮김(2004) 『미국의 역사』 미국국무부, p.17.
- 하워드 진 지음, 조선혜 옮김(1986) 『미국민중저항사』 일원서각, p. 11.
- 外務省, 「外務省公開マイクロフィルム番号」, b'0008, pp.0195-0196.
- 下条正男(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377, pp.7-188.
-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 東京大学出版部 `pp.334-349.
-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独島論争』 新幹社, pp.11-342.
- 日本外務省, 「竹島問題」, 「米軍訓練場に対する指定(官報)」(PDF),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beigun.html(검색일: 2013년 7월 30일)
-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1952의 부속지도 참조.
- Hale, C. (2008) "When Hawaii Had a King", Smithsonian Magazine, February 2008, p. 21.
- Kinzer, Stephen (2006) America's Century of Regime Change from Hawaii to Iraq Miller 1984, p. 163.

要 旨

本研究は将来独島の領有権に与えるアメリカの領土認識を考察するためにアメリカ建国における領土成立過程を検討した。今のアメリカの領土はもともと北アメリカに住んでいた原住民インディアンの地であった。1776年アメリカが建国される前には英国がこの地域を植民地として統治していた。西洋からわたってきて北アメリカを占領した帝国国家はスペイン、フランス、英国、オランダであった。英国はこれらの諸帝国を戦争をもって統一した。それで英国が統治したのは原住民インディアンではなく、フランスの植民地、スペインの植民地,和蘭の植民地であった。北アメリカには西洋帝国らが北アメリカを植民地として開発したとき、アフリカ黒人は労働力として売られてきた。このように英国の本国はもともと原住民インディアンの地であった北アメリカ大陸を植民地として170年間を統治してきた。しかし英国の植民地である北アメリカの構成員は英国人だけではなく、フランス、スペイン、和蘭,原住民インディアン、労働力としてアフリカ黒人など多様な民族が住んでいた。彼らは独自の国家経営を渴望して英国の支配を受けるのを嫌がった。それゆえ、英国に対して戦争を避けずに1776年独立を宣言した。つまりアメリカは固有領土を基盤として住んでいた原住民インディアン領土を侵略して国家を建国した。アメリカの領土は帝国主義的な領土形成であった。アメリカは固有領土論を認める認識は薄く、むしろ帝国主義的方法で領土を取得したことを国際法上の正当な方法であるという認識を持っている。その意味でアメリカは固有領土論を独島領有権に対する認識が絶対的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キーワード：米國領土、米國の領土認識、竹島,獨島、國際法、固有領土論

투 고 : 2013. 11. 30
1차 심사 : 2013. 12. 14
2차 심사 : 2014. 1. 4